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가 2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과학, 교육, 문학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이 회의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지도간부들,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위원회 성원들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 허종만 총령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들이 의장석에 앉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탁월한 신군정리도 주체조선의 무궁변영의 새력사를 열어놓으신 공화국의 영리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최태복의장이 회사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회의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의 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
2. 조직문제
첫째 의안에 대한 보고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박봉주대원이 하였다.

보고자는 전반적12년제무교육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정부가 실시하여온 전반적12년제무교육의 빛나는 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발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교육총서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령제》를 내놓으시고 주체교육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었으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로작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로작들을 발표하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시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체교육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교육총서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길에 있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변영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각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당의 교육총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는 귀중한 성과들이 이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나설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오늘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은 혁명발전의 요구,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기본고리는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데 있다는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군들과 교육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교원대렬을 잘 꾸리고 그들의 수준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할데 대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새형의 인재들을 원만히 키워낼수 있게 나라의 중등일반교육체제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벽해나갈데 대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학생교육양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데 대하여, 교육조건과 환경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켜나갈데 대하여,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지도사업체제와 질서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육강령집행에 대한 법적통제를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끝으로 그는 모두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높이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여 주체교육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며 이 땅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로두철대의원, 한광복대의원, 김승두대의원, 동정호대의원, 리만근대의원, 장병태대의원, 전용남대의원, 김군순대의원, 최정태대의원, 안금철대의원이 토론하였다.

리훈영대의원, 정형숙대의원, 임종실대의원, 김인순대의원, 김두삼대의원이 서면토론을 제기하였다.

토론자들은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

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민대계의 애국사업이라고 하면서 당의 중대한 조처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조국관, 후대관, 미래관이 구현되어있는 전반적12년제무교육이 실시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전반적12년제무교육이 실시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혁명인재육성사업에서 전향적일어나고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체제의 우월성이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능력을 소유한 주체형의 혁명인재로 더욱 역세게 키워나갈데 대하여 결의를 표명하였다.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전반적12년제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안이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최태복대의원을 직무변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

회 부위원장에서, 장정남대의원을 직무변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제의에 따라 황병서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현영철대의원, 리병철대의원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최태복의장이 폐회를 하였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제12차 전국레권도기술혁신경기 진행

제12차 전국레권도기술혁신경기(이하 제12차 전국레권도기술혁신경기)가 16일부터 23일까지 평성시에서 진행되었다. 레권도국가종합선수단과 조선체육대학, 중앙체육대학, 평양시, 각 도, 순천체육센터 합기업소레권도선수단 등 15개 단체에서 선발된 200여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였다.

경기는 1부류와 2부류로 나뉘어 맞서기, 틀, 투기, 위력, 호신경기의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평양시레권도선수단은 종합 제1위를 쟁취하였으며 평안남도레권도선수단과 함경남도레권도선수단이 각각 제2위, 제3위를 하였다.

맞서기경기에서는 함경남도레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레권도선수단(여자)이, 레권도에서는 평안남도레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레권도선수단(여자)이, 투기경기에서는 평양시레권도선수단(여자)이, 위력경기에서는 조선체육대학(남자), 강원도레권도선수단(여자)이, 호신경기에서는 평안남도레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레권도선수단(여자)이 각각 우위를 하였다.

한편 바둑단체전에서는 함경남도레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레권도선수단(여자)이 높은 성적을 쟁취하였다.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상상이 수여되었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애국애족의 내용으로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마련하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채택발표로 감격에 겨워있고 그때를 돌이켜보고있다.

수십년세월 꿈꿔 얼어붙었던 대결의 동토대가 봄눈처럼 순간에 녹아내리고 꿈과 같이 열린 하늘길, 바다길, 땅길로 북과 남의 수많은 우리 겨레가 오가고 서로 일사단언이며 파연이것이 통일임을 실감하던 감격과 기쁨의 나날들이었다.

10.4선언의 채택으로 6.15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평화번영과 통일로 가는 넓은 길이 열려졌을 때 우리 겨레는 말그대로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휩싸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등장한 리명박부호 《정권》은 6.15가 이루어놓은 꿈과 같은 현실을 모두 부정하고 북

관계개선도 평화통일도 오직 이 길에

남공동선언들의 리행을 공공연히 거부해나섬으로써 화해와 협력의 북남관계를 또 다시 대결로 돌려세우고 통일 시간표를 거꾸로 돌려놓았다.

그들은 북과 남의 수뇌들이 합의하고 온 민족과 세계앞에 엄숙히 섰던 10.4선언을 《부도난 약속어음》, 《새 《정권》이 리행할 무가 없다.》느니 하고 전면부정하였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온 6.15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하였다.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된 북남대결은 동족사이의 불과 불이 오가는 비극적사태를 초래하였으며 그러한 대결상태는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뀐 오늘까지도 지속되고있다.

어서빨리 통일을 이루고 하나의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가야 할 우리 겨레가 서

로 총부리를 맞대고 대결하는것은 민족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과 온 겨레는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남조선당국이 하 루빨리 대결정책을 전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남로 높아가는 내외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굴러갈 남조선보수당국은 《대화》을 뒤로 하면서 대결정책을 가리우고 마치도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하려는 의사가 있는듯이 교활하게 높아 가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술책으로 도 저들의 대결정책을 가리우는 없다.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소동을 한창 벌여놓고 이른바 《대화》를 제의한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다가 국제무대에까지 나가 반공화국인권소동을 벌여놓고 동족이 참가한

을 위한 실천강령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오늘의 첨예한 정세는 북과 남이 서로 대결할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길만이 살길이고 공존공영하는 길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북남관계를 진정으로 개선하려면 이미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고한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해야 한다.

특히 10.4선언에는 현시기 남조선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다 들어있으며 선언이 리행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나갈수 있다.

10.4선언을 포함한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여기에 북남관계개선에 있고 화해, 협력도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펼쳐나감으로써 이 땅에 평화통일과 번영하는 통일 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최 명 제

전국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성과 발표회 진행

전국화학공업부문 과학기술성과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8일과 19일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진행되었다.

국가과학원,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한덕수평양공업대학,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등 과학, 교육기관, 화학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근로, 연구

평양시레권도선수단은 종합 제1위를 쟁취하였으며 평안남도레권도선수단과 함경남도레권도선수단이 각각 제2위, 제3위를 하였다.

맞서기경기에서는 함경남도레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레권도선수단(여자)이, 레권도에서는 평안남도레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레권도선수단(여자)이, 투기경기에서는 평양시레권도선수단(여자)이, 위력경기에서는 조선체육대학(남자), 강원도레권도선수단(여자)이, 호신경기에서는 평안남도레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레권도선수단(여자)이 각각 우위를 하였다.

한편 바둑단체전에서는 함경남도레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레권도선수단(여자)이 높은 성적을 쟁취하였다.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상상이 수여되었다.

10.4선언의 채택으로 6.15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평화번영과 통일로 가는 넓은 길이 열려졌을 때 우리 겨레는 말그대로 크나큰 환희와 격정에 휩싸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등장한 리명박부호 《정권》은 6.15가 이루어놓은 꿈과 같은 현실을 모두 부정하고 북

남조선에서 북남관계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공화국을 심히 자극하며 대결을 격화시키는 불순한 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21일 남조선의 경기도 파주에서 극우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인간스레기들은 북측을 향하여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는 불순한 내용으로 일관된 수십만장의 삐라, USB와 DVD, 불순소책자 등을 대량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내는 국도의 도발행위를 또 다시 감행하였다.

송도원역-세길역사이 철길 개통, 송도원역 준공

세상에 볼도 없는 아이들의 공전으로 솟아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야영생들을 위한 새 철길과 철도역이 훌륭히 건설되었다.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역-세길역사이 새

철길과 송도원역은 전국각지에서 이곳 야영소로 오가는 소년단원들이 마음껏 리용하게 될 사랑의 전용철길, 전용역이다.

철길개통 및 역준공식이 23일에 진행되었다.

관계부문 일꾼들, 철도운수부문 일꾼들과 종업원들, 군인건설자들, 송도원국제

남조선에서 북남관계의 운명은 아랑곳없이 공화국을 심히 자극하며 대결을 격화시키는 불순한 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21일 남조선의 경기도 파주에서 극우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인간스레기들은 북측을 향하여 반공화국대결을 고취하는 불순한 내용으로 일관된 수십만장의 삐라, USB와 DVD, 불순소책자 등을 대량 풍선에 매달아 날려보내는 국도의 도발행위를 또 다시 감행하였다.

의 삐라살포행위가 북남관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하여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당국에 엄중히 경고하였다. 최근에는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는데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반공화국 《풍선작전》에 종지부를 찍을것을 엄숙히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라살포행위를 보란듯이 계속 갈

리내보여주고있다.

앞에서는 북과 남이 이룩한 비방중상함을 《준수》한다고 떠들고 뒤에서는 악질보수단체들의 삐라살포행위를 묵인비호하고 부추기고있는것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남조선당국이 《풍선작전》이 벌어질 때마다 관하전연경계부대들과 감시초소들에 삐라살포시간과 장소는 다는 수필밑에 경찰을 동원하고 버스도 장벽을 만들며 그들의 항거를 저지시키며 인간스레기들의 망동을 강력 비호해나섰다.

사람값에도 들지 못하고 몇푼의 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인간스레기들이 방대한 량의 삐라와 기적기, DVD를 구입하여 그것도 군부가 관할하는 최전연일대에 무리로 나타나 날려보내

는것이 대회의 후심을 계속 품고있으면서도 《신뢰》나, 《대화》니 떠드는데 말이야말로 역경기 그지없는 처사이다.

더구나 대방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면서 《신뢰》를 운운하는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며 파멸적인 망발의 극치이다.

남조선당국이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대결을 고취하는 국우보수단체들의 삐라살포행위를 계속 비호조장하는것은 로골적인 북남관계파괴책동이다.

그것은 남조선당국이 바라는것이 대화와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이라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무모한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가 가져온 엄청난 후과를 똑바로 보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주 광 일



행하고있는것은 로골적인 대결의 선언이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이 《체제 특성》을 운운하며 《민간단체들이 하는 일기때문에 당공연히 드러내놓으면서 공화국을 헐뜯고 자극하는 삐라살포에 열을 올리는 인간스레기들의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문제해 동족을 약의에 차서 헐뜯고 비방중상하는 악질 《탈북자》단체들의 삐라살포행위가 남조선당국의 목적인데 비해, 조장하여 감행되고있다는데 있다.

알려진것처럼 공화국은 날로 우시해지는 인간스레기들

물론 풍선의 형태와 색깔에 이르기까지 미리 통보해주는가 하면 인간스레기들에게 살포방식까지 조언해주고있다는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지어는 《탈북자》단체들이 반복삐라를 살포하려 할 때마다 가까이있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대기포병들이 즉각사격태세를 유지하게 하는 등 삐라살포를 군사적으로 적극 위반 침하고있다.

이런에도 남조선당국은 삐라살포당일에 진보련대 등 시민운동단체들과 현직주민들, 개성공업지구기관계자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를 반대해 나서자 《물리적충돌》을 막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금메달은 최고의 목표이며 꿈이라고 할수 있다.

바로 금메달을 쟁취하기 위해 남들이 다 자는 밤에도 훈련하며 휴식일도 따로 없이 땀과 열정을 바쳐가는 체육인들이다.

그러나 금메달로 향한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또 그 길에 나선 이들은 많고도 그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바로 그래서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그 순간은 인생의 결정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국제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때의 심정을 어찌 한두마디의 글로써 다 표현할수 있으랴.

하다면 체육인으로서 최고의 순간인 우승의 단상에 오를 때 조선의 선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지난 20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가 진행되고있는 인천의 하늘가에 공화국의 국가인 《애국가》의 선율이 장중히 울려 퍼졌다. 남자력기 56kg급경기 출전한 엄윤철선수가 우승의 금메달을 따낸 순간이었다.

평양의 하늘가를 우리러 승리의 보고를 올린 엄윤철선수는 우승의 소감과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금메달을 쟁취한 순간 우리의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제일먼저 안겨왔다. 그이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경기마다에서 현전련승할수 있었다.》

그만이 아니다. 다음날 62kg급 령기경기 출전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의 영예를 쟁취한 김은국선수도 기자들의 질문에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되었고 생각하니 감격을 금할수 없다고 말해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이것이 우승의 단상에서 공화국선수들이 터친 심장의 고백이다.

그들이 말한것처럼 금메달을 쟁취한 순간 조선의 체육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것은 환하게 웃으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을 휘날리는것은 천만군민을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백마디, 천마디의 말로도 대신할수 없는 커다란 호소력과 감화력을 가진다고 하시며 체육인들이 더 많은 국제경기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도록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며 세심하게 아끼고 보살펴주시기 때문이다.

엄윤철, 김은국을 비롯한 공화국선수들이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공화국을 띄우고 돌아왔을 때 로려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친히 우승자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경쟁경기를 지도하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

을 몸가짜이 부르시어 고무도 해주시며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원수님이셨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제경기마다에서 훌륭한 경기성과를 이룩한 선수, 감독들에게 보 통

강기슭에 번듯하게 일떠선 살림집까지 안겨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도 돌려주시었다. 이번 대에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일이 이처럼 바쁘신속에서도 친

히 남녀축구선수들의 경연경기를 지도해주시어 선수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 그들의 친어비같은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체육선수들이 국제경기마다에서 높은 경기성적을

상에 오르는 순간이면 제일먼저 자기의 경도자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것이다. 1999년 8월 29일 에스빠냐의 세빌라에서 진행된 제7차 세계륙상선수대회 여자마라손경기

서 2시간 26분 59초동안 달리고 달려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닌 정성숙선수가 어떻게 영예의 1위를 쟁취할수 있었는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경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달렸다. 이것이 오늘 나를 크게 고무하였으며 힘의 원천으로 되었다.》라고 말 해 세인의 화제가 되었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10여 년전의 일이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했지만 오늘도 조선의 체육인들은 훈련장에 나설 때나 경기장에 나설 때나 그리고 우승의 단상에 오를 때나 언제나 자기의 경도자만을 그리며 달리고 그 힘으로 육체적능력의 한계점도 극복하며 승리의 금메달도 쟁취하는것이다. 그 힘이 있는 한 조선의 체육인들은 언제나 국제경기마다에서 공화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칠것이며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을 세상에 금지높이 울려 퍼지게 할것이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승리의 첫 개가를 올린 엄윤철선수의 뒤를 이어 김은국, 리정화, 홍은정, 김은주, 김은향선수들이 연이어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인천의 하늘가에 《애국가》를 높이 올리고있다. 우승의 보고를 받으면서 그처럼 기뻐할수 경에하는 원수님께 체육인의 본분을 다 하러 정열을 바치고 땀을 쏟은 그들이었다.

지금 공화국의 남녀선수들은 남은 경기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따내는것으로 경에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정과 힘을 다해 뛰고 또 뛰고있다.

레일에는 또 어느 선수가 우승의 금메달을 들어올려 조국인민들과 격례를 뜨르게 하였는지? 본사기자 김강철

인상기

힘모의 마음 선물들마다에 어려

조국을 방문한 기회에 나는 평양에 있는 국가선물관을 찾게 되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에하는 원수님께 올린 선물들을 돌아보는데는 흥곤 일주일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그곳 관리사는 말했다.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끼고 바다물은 한모금 을 마셔보아도 그 맛을 다 안다고 하였다. 그 종류와 수를 다 헤아릴수 없이 많고 많은 선물들이지만 거기에 는 하나같이 공동된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원세위인들 에 대한 애록과 호모, 충승 이었다.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누구나 이민위천 을 천품으로 여기고 인민의 별세상을 펼치신 민족의 령수에 대한 다함없는 애록 과 호모심이 한결한결의 선물들에 어려어 선물관은 그대로 인간애록과 지성의

보물고였다. 나는 선물관의 매층에서 중점을 이루는 몇개의 호실 들을 돌아보았다. 각계층 인민들과 나아린 학생들로부터 지경님어 세계의 이름있는 인사들과 국가수반들이 보내온 선물들 하나하나에는 지극한 정성이 숨배어있었다.

철을 다루는 노동자들은 철조각들을 알아야 같고같 아 그 수백, 수천조각으로 자기들의 일터를 찾으신 수령님의 영상을 형상한 철 조각들이 《천어비이사랑》 이라는 그림을 만들어 올리였 과 호모심이 한결한결의 선물들에 어려어 선물관은 그대로 인간애록과 지성의

은 매혹은 그 진실을 현실로 만든것이었다. 바다를 지키는 조도의 인민군인들은 수십리 날바 다를 헤치고 자기들의 조소 를 시찰하신 장군님의 모습을 형상한 인조보석화를 정성담아 만들어 삼가 올리였 다. 여기에는 눈물없는이들 을 헤치신 감동깊은 이야기 가 깃들어있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초도를 시찰하신 날은 너무 도 파도가 세하고 바람이 심하게 인 날이었다. 초도의 인민군장병들은 험한 날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파도 를 헤치시며 자기들을 찾으 신 최고사령관의 모습을 잊 을수 없어 진주조가비와 산

호초들로 작품을 형성하였다 고 했다. 경도자와 인민들사이 에 맺어진 혈연적인 뉴대는 선 물마다에 그대로 깃들어있 었다.

갈마휴양소를 찾으신 어 느날 장군님께서는 휴양소 의 특이한 침대를 만져보시 며 자신께서는 이제는 허리 가 아파 특이한 침대에 누 을수 없다고 하신적이 있었 다고 한다. 그날의 사연을 알게 된 인민들은 3년간이나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며 채 취한 작목나무와 향나무 등 약재나무들로 알박이침대를 만들어 그이께 삼가 올리였 신 최고사령관의 모습을 잊 을수 없어 진주조가비와 산

에서 언젠한번 허리를 펴보 지 못하고 생애의 마지막순 간까지 현실과 로고의 길을 이으시었다.

참으로 한쪽의 그림, 한점 의 선물에서도 민족이 만들어 모신 령수가 얼마나 위대한분 들이신가를 시각적으로뿐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으며 그런 령수를 모신 민족의 일원이 된 자부심을 뿌 듯이 느낄수 있었다.

선물관을 돌아본 한 동포 는 《인간이 인간에게 매혹 되지 않고는 도무지 만들어 낼수 없는 선물이다.》라고 자기 감동된 마음을 토로 하였다고 한다. 철세위에 대한 우리 겨레 와 세인의 열렬한 호모와 존 경심이 홀려넘치는 국가선물 관은 그대로 인간애록, 위인 호모의 대전당이며 대대손손 길이에 전해갈 만년재보라고 생 각하게 되었다.

재로싸아동도 최재금

승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쳐

2500여리의 눈보라길

주제 97(2008)년 1월 1일 대소한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자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도소 서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후덜덜 하였다.

그것은 바로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보라 길을 헤치시고 자강도를 다 나가시였기때문이었다. 그때 현지도도를 마치시고 평양에 도착하신 장군님 의 심중에는 조국의 최북단 에 자리잡고있는 한 땅상에 들리지 못하고 오신것이 무 겁게 자리잡고있었다.

조국 땅 한길에 살아도 언 제나 맡없이 많은 일을 하 는 광부들을 이번 길에 직 접 만나보지 못하고 오신것

이 마음에 걸리신 그이께서 는 평양으로 올라가시였다 가 눈보라치는 길을 되돌아 오시였다. 너무도 곱مان 같은 영랑 에 휩싸여 놀라움과 경탄속에 오려면 터치는 광부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그이께서는 나는 일을 많이 한 땅산일군들과 로 동계급이 보고싶어서 왔다 고, 며칠전에 자강도에 왔다가 이 땅산을 돌아보지 못하고 간것이 마음에 걸 려 다시 왔다고 조용히 말 씀하시였다.

그 누가 말하기를 수천척 지하막장의 탄부나 광부의 인생은 버려지는 막돌이나 버려파 같은 버려 인생이라 고 하였다. 허나 수천만 인민들을 친 자기처럼 여기시며 자식에 게는 차별없는 사랑을 부 어주는 어머니와도 같이 그 어디에 있던 자애로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이 나라 의 광부들은 이런 하해같 은 사랑을 받아안은것이 였다. 정녕 한 나라의 경도자가 만나보지 못한 광부들을 찾 아 왕복 2500여리 눈보라 길을 되돌아 찾으시인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는 오직 인 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안으신 어머니를 모신 이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근 70성상은 리상 사회에서 살아보려는 민족의 더번이현실로 펼쳐지기 위해 어머니수령님께서 바쳐오신 한평 생의 로고와 그 길에서 남긴 거 대한 업적의 력사이다.

지난 력사의 갈피에는 리상사회 건설에 대한 인민의 꿈을 피력하 며 자기의 한생을 다 바친 유명 무명의 제사들과 위인들의 활동이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그 꿈과 리 상을 자기의 한생에 현실로 실현 하여 보여준 위인이나 명인은 없 었다.

주체의 나라, 인민의 나라로 빛 을 뿌리고있는 이 땅 에서는 수령님께서 고귀한 유산으로 물 러주시신 사회주의가 수수천년 부강번영을 갈망해온 민족의 리상과 념원을 현실로 펼쳐 놓고있다.

해방직후 세 조선건설로 들끓는 북녘땅을 찾아 몽양 려운형이 평 양에 있었다.

어느날 수령님을 만나보고 독 령과 정치의 열쇠도 인민들속에서 찾고 정치의 열쇠도 인민들 속에서 찾아 나라의 정사를 떠나 가야 한다는 그의 지론에 감복 한 려운형은 그이께 장군님, 저 는 60평생 조선민족의 진로를 찾 아 해마다가 뒤늦게나마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제가 북에 와보니 장군님이 베푸시는 정치는 꿈에서 그리던 리상정치입니다. 우리 조 선은 장군님을 모시여 정말 태양 의 광명을 받아안았습니다나라고 말씀드리었다.

우리 민족이 념원한 리상사회는 물론이고 동서방의 각이한 민족들이 그려본 리상사회는 인간존중의

사회, 인간에 의한 착취와 지배가 없고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는 평 등사회에 대한 갈망이었다.

수령님의 탁설하고 독창적인 국 가건설과 국가활동의 사상과 로 선, 경도가 세상사람들이 공감하 고 동경하는 조선식사회주의, 진 정한 인간존중의 나라, 인민대중 중심의 나라를 건설하였다.

1992년 12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어머니수령님께서 는 내가 최고로 록에 이민위천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뜻 이다. 이민위천은 나의 지론이고 철학이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차 들지 못하고 살던 불행한 너니 들의 처지에서 남녀평등법령의 구절들을 생각하고 봉건적인 남 존녀비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신 수령님이셨었다. 그이께서는 공화 국을 자주적인간의 존엄을 담보하 는 리상사회로 건설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과 로선, 사회적 시책들을 철두철미 인민들의 리익 과 사를 반영하여 작성공포하고 인민자신의 손으로 철회하시행하 도록 하는 원칙을 일관성있게 구 현하도록 하시였다. 그러면 지배 와 억압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자주적요구에 맞게 행사하는 권리,

목적이 있을뿐인것이다. 노동자, 농민들이 국가정사에 참가하여 정책을 론하고 누구나 인장된 직업을 가지고 창조적로동 을 하며 국가가 품들어 마련한 문 화생활기지에서 문명을 누리고 뜻밖의 재산을 당한 사람들을 위 해 하는, 땅, 바다에서 리체적인 구조작전을 펴는것이 공화국의 현실이다.

지금으로부터 스무해전 미국 《워싱턴 타임스》 기자들을 만나 신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제기한 공화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말씀하 시면서 우리 나라는 인민대중중심 의 사회주의 나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인격과 자주적권리가 실질적으 로 존중되고 보호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 에게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 는 물론 로동과 휴식의 권리, 교 육과 의료보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인민 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한 리권 기준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인간존중의 조선식사회주의는 어머니수령님께서 구상하신 리상 함이었던 한평생 바쳐오신 로고와 심혈의 고귀한 결실이다. 공화국의 력사는 리상사회로 향 하는 인류의 기나긴 력사적로정에 비추어볼 때 한순간에 지나지 않 지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이 땅위에 인 간존중의 리상사회를 현실로 펼쳐 오 는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 도따라 사회주의문명국의 전성기 를 펼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인간존중의 리상사회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평 생 인민대중을 하늘과 같이 여기 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였으 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 명을 하여왔다그 말씀하시였다.

인민위천에 수령님의 한생의 지 론과 인간존중의 철학사상이 집약 되어있으며 그것은 공화국이 인 간의 존엄과 인격을 최고로 존중시 하는 사회주의사회로 될수 있게 한 사상정신적원천이었다. 수령님께서 는 공화국을 자주적 인간의 존엄을 담보하는 리상사회 로 건설하기 위해 인민대중의 이 격과 가치를 최대한 높여주는것 을 제도적으로 법화하도록 하시 였다. 해방후 폐허로 된 강선계 강소(지금의 천리마제강련합기업 소)를 찾으면서 나아린 소년로동 자)의 솜에서 노동법령의 조항 들을 하나하나 구상하고 발표하 신 수령님이시였으며 지난날 인 간이하의 천대와 속박속에 머리조

수필 **철쭉이 핀다**

무릇 철쭉이라고 하면 진달래와 얼지 않은것을 이라고 해발높이 2000m에의 산지에 뿌리를 둔 꽃나무 이다.

봄계절에 피었다 지는 꽃이지만 철쭉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군의 상징으로 일컫는 철쭉과 함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꽃으로 언 제나 피어있다. 새삼스레 철쭉에 대한 이야기를 꺼 내는것은 평양양말 공장에 대한 취재길 에서 받은 충동때문 이다.

정결하고 아담한 구배를 지 나 생산공정을 따라 한장을 둘러보는 나에게는 기자라는 직 업적본연보다도 녀성으로서의 호기심에서 녀자양말직장이 더 인상적이였다. 양말생산의 첫 공정인 제직 작업장에 딱 들어찬 기계들에서 생산되어 일정한 시간간격 으로 제품통에 들어가는 양말 들, 프로그램에 따라 임의의 양말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 내는 자동화된 기계설비들, 능 른높은 봉조기들앞에서 갖가지 모양과 색깔의 양말들을 완성 가공하고있는 생산자들, 열처 리기대들에서 훌러나오는 긴양 말과 짧은 양말들 ...

내가 제품포장공정을 지켜보 고있는참인데 문득 직장장이 공 장을 찾으신 그날 장군님께서 제품포장의 질을 높이는것과 함 께 소비자들의 심리에 맞는 상 표를 도안해야 한다고 이르시 었다고, 그래서 《철쭉》이란 는 상표가 나왔다고 말하는것 이였다.

《철쭉》, 많이 많은 두글자를 되뇌이 는 나의 심중에는 뜨거운것이 그득 차올랐다. 나의 눈앞에 장군님 얼굴이 으신 험준한 철쭉의 념고들이 펼쳐졌다. 꽃은 날, 마른 날 가림없이 결으신 전설같이 었다. 어게로 지지는 아전자를 미시며 쉬임없이 념고님으신 철쭉이였다.

언제인가 한 시인이 철쭉을 념으며 받았던 느낌에 대하여 한던 이야기를 잊을수가 없다. ... 령길이 너무 가파로우 운 전수는 물론이고 앉았이는 사 람들모두가 땀으로 미역을 감 띠는 나에겐은 기자라는 직 업적본연보다도 녀성으로서의 호기심에서 녀자양말직장이 더 인상적이였다. 양말생산의 첫 공정인 제직 작업장에 딱 들어찬 기계들에서 생산되어 일정한 시간간격 으로 제품통에 들어가는 양말 들, 프로그램에 따라 임의의 양말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 내는 자동화된 기계설비들, 능 른높은 봉조기들앞에서 갖가지 모양과 색깔의 양말들을 완성 가공하고있는 생산자들, 열처 리기대들에서 훌러나오는 긴양 말과 짧은 양말들 ... 철쭉을 념으시던 그 나날 리경순

제 17 차 아시아경기대회 소식

력기경기들에서 금메달쟁취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력기 56kg급 경기에 출전한 인민체육인 엄윤철선수는 남자력기 62kg급 경기에 출전한 인민체육인 김은국선수, 여자력기 58kg급 경기에 출전한 리정화선수, 여자력기 75kg급 경기에 출전한 김은향선수가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에 출전한 김은국선수는 끌어올리기 첫번째들기에서 2010년에 진행된 제16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세운 기록인 147kg을 가볍게 뛰어올리고 두번째, 세번째들기에서 152kg, 154kg을 단번에 들어올려 아시아경기대회 기록과 아시아기록, 세계 기록을 갱신하였다.

전한 리정화선수는 추켜올리기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여주어 2위를 한 선수보다 8kg 더 많은 134kg을 성공시키며 종합 292kg으로 아시아경기대회 기록을 갱신하고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여자체조 조마, 평균대운동에서 우승

체조 여자조마운동에 출전한 홍은정선수는 시작달리기로부터 허리펴고 뒤공중 900° 돌기와 마지막 내러티디기까지의 모든 동작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여 맞달든 선수들을 보기 좋게 누르고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 체조 평균대운동에 나선 김은향선수는 평균대에서 뒤로 허리펴고 360° 돌기 동작을 비롯하여 난도높은 기술 동작들을 제치었으면서도 정확하게 수행하여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하였다. 한편 우리 여자체조 선수들은 단체경기에서, 사격선수들은 남자단체 10m이동목표사격경기에서, 김명희선수는 남자력기 69kg급 경기에, 김광성선수는 남자력기 77kg급 경기에, 리은희선수는 여자력기 69kg급 경기에, 실경선수는 여자유술 78kg급 경기에, 조영철선수는 남자

인 10m이동목표사격경기에서 각각 2위를 하여 은메달을 받았다. 우리 나라의 남, 녀유술선수들인 홍국현선수는 73kg급 경기에, 김설미선수는 48kg급 경기에, 리효순선수는 57kg급 경기에, 조복향선수는 여자력기 63kg급 경기에, 림정심선수는 여자력기 75kg급 경기에, 강영미선수는 체조 고저평행봉운동에서 3위를 하여 동메달을 받았다. 또한 우리 선수들은 여자단체 유술경기과 남자기합호대상경기에서, 중추체조무용 집체자유선택경기에서 각각 3위를 하여 동메달을 쟁취하였다.

본사기자



엄윤철선수



김은국선수



리정화선수



홍은정선수



김은주선수



김은향선수

최근 미국에서 남조선의 《천안》호침몰사건과 관련된 하나의 자료가 공개되어 여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함선침몰당시 미해군정보책임자는 《이 문제(어뢰)에 의한 진공유독발)는 계속 우리 조사를 당황하게 하고있지만 아무것도 들어올려주지 않다.》, 《분명히 진공유독발리온을 지지하지 않으며 또한(남측이 주장한) 폭발내외부 잔류물조사도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 드러났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며 남조선당국의 최종보고서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못한것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이 는 폭발이 없었다는 그동안의 여러 사실들을 미해군이 그대로 대변하는것》이라며 《천안》호가 결코 남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북의 어뢰》에 맞아 침몰한것이 아니라 남조선당국의 최종보고서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못한것을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이 는 폭발이 없었다는 그동안의 여러 사실들을 미해군이 그대로 대변하는것》이라며 《천안》호가 결코 남조선 당국이 주장하는 《북의 어뢰》에 맞아 침몰한것이 아니라 남조선당국의 최종보고서도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못한것을 인정하였다.

침묵목적 실현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해낸 것이다. 2010년 3월 26일 조선서해상에서 《천안》호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침몰되어 46명의 군인들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리명박 《정권》은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고안해낸 것이다. 2010년 3월 26일 조선서해상에서 《천안》호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침몰되어 46명의 군인들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리명박 《정권》은 사고원인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고안해낸 것이다.

드러난 《북어뢰설》의 진상

문에 《북관련설》을 의도적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저들끼리의 속덕공문 끝에 나온 얼치기 《조사결과》라는 것을 통해 《천안》호가 북의 어뢰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황당한 발표를 하였다. 이 조사결과를 하나에서 열 백으로 부는 의문수식어들이었다. 하기에 공정한 내외의 조사결과와 부당성을 까발리며 공화국의 주장대로 북의 음흉한 속심이 있었다. 당장 눈앞에 박두한 6.2지방선거에서 우세를 차지하는것은 물론 민심의 반 《정부》 기운을 동족대결에로 돌리기 위해 반공화국모략국이 필요하였다. 현실적으로 리명박 《정권》은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 실현을 위해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고 《5.24조치》를 통해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갔다. 현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반공화국베라살포의 앞장에는 이른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표라고 하는 박상학이 서있다. 박상학, 이자는 어떤자인가. 자본주의 일본에서 천덕꾸러기의 인생을 살아가던 박상학은 공화국의 품에 안겨 대학공부까지 하며 참다운 삶을 누릴수 있었다. 하지만 이자는 공화국의 은덕에 어떻게 보답했는가. 일하기 싫어하고 부화방탕을 일삼던 나머지 돈에 환장하여 《청자예병》을 비롯한 민족문화

를 밀며하며 민족반역 행위만 일삼았다. 그로 하여 엄중헌 법적 처벌을 받게 되자 남조선으로 달아나 이자는 한문 어찌도 안되는 너절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반공화국베라살포에 두달 걸고나섰다. 짐승도 길러준 은혜는 안다고 했는데 은혜는 갚지 못할지언정 등을 돌려대는것도 모자라 끝까지 이를 하고있는 인간쓰레기. 추물이 바로 박상학이다. 이인자를 보배인듯 추어 올리며 그 무슨 《자유외선인민정》에 수억원의 돈도 아낌없이 퍼붓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집권세력이야말로 쓰레기통이 분명하다. 하기는 2012년 《새누리당》이 당마크를 제정할 때 남조선인민들은 《새등지》, 《당그릇》, 《변기》처럼 생겼다고 비난하였었다. 고마운 품을 버리고 달이나 배신으로 대답하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박상학자와 같은 인간쓰레기

나 이인자들도 서슴없이 담아주는 《새누리당》이나 갈고잡는자들 이라는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인자들이 있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지연되고 민족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계속 조장되고있는 것이다. 쓰레기나 쓰레기통이나 더럽기는 마찬가지다. 다시는 더러운 냄새를 피우지 못하게, 화해와 단합, 통일에도 지향하는 민족의 넋을 더럽히지 못하게 아예 오물장으로 보내고 소각시켜버림이 마땅할 것이다. 심영철



남북관계 파탄 한반도 평화 파괴 대북진단살포 규탄 기자회견

단상 공화국기는 휘날린다

인민의 하늘가에 공화국기가 펼쳐 나뉘고있다. 20일 공화국의 엄윤철선수가 남자력기 56kg급 경에서 세계기록을 수립하며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여 공화국기를 하늘높이 휘날렸다. 이어서 력기장자 김은국선수가, 여자력기선수 리정화, 여자체조선수 홍은정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따내 시상식에서 공화국기를 올리였다. 조국인민들과 남녀동포들은, 아시아인이 지켜보는 영예의 1등시상대에서 우리 선수들은 공화국기를 펼쳐대 감사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였다. 사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남조선에서 공화국기는 반공화국대결세력들에 의해 끝없는 논란에 휩싸였었다. 공화국의 선수단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과 관련하여 진행된 북남실무협상에서 남측은 《공화국의 규격이 너무 크다.》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주장들을 내놓어 협상이 깨지게 했다. 경기대회가 진행되는 지

점은 주변의 거리들에 공화국기가 내걸렸것을 두고 보수단체들이 항의하는 망둥들이 벌여졌고 이것을 구실로 남측당국은 공화국기와 다른 나라 국기들을 경기장 주변과 거리들에서 내리우는 국제경기력사에도 없는 해괴한 추태를 부리였다. 이것은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 체질적인 반북적대의식이 낳은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다. 유엔의 당당한 승인국이며 자주로 빛을 뿌리는 공화국을 아예 부정하고 《금번사태》, 《체제대결》의 어리석은 망상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부질없이 날뛰는자들만 감행할수 있는 낮은 행 위인것이다. 이런 악착스러운 대결분자들 의하여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는 백주에 거리에서 공화국기를 불태우는 광대극도 벌어졌고 공화국기를 표적으로 삼아 총포탄을 쏘아대는 회색의 망둥도 서슴없이 감행되었었다. 그러나 대결에 환장한 세력들이 공화국기를 내리워려고 아무리 지랄발광을 해

도 인천의 하늘가에는 애국가가 장엄히 울려 퍼지고 람송해공화국기가 자랑스럽게 휘날리고있다. 그것을 남 녀의 인민들도, 세인도 다 지켜보고있다. 휘날리는 공화국기가 말해 주듯 공화국은 영원한 승리의 나라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갖은 압살책동을 벌려도 조금도 끄떡없고 낱알이 더욱 위용을 떨치며 행성의 강국으로 솟아나는 나라이다. 인민의 창의로 세워지고 인민의 힘으로 점진하는 인민공화국, 그 위용을 상징하며 세기를 이어 만리창공에 더욱 빛을 뿌리는 공화국기를 과연 그 누가, 어떤 힘이 내리울수 있었는가. 끌어내리울수도 가리울수도 없다. 격례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인민의 각시장들에 오르는 공화국기를 보며 남쪽의 대결광신자들은 이제라도 속박에서 새겨야 할것이다. 허세리인 반공화국도발소동은 하늘의 해를 떨어뜨리려는것과 같은 부질없는 망동에 불과하다는것을.

김연희

경기장을 뒤흔드는 《통일로국》의 외침

지금 남조선의 인천에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리가 현실로 펼쳐지고있다. 지난 15일 제 17차 아시아경기대회 남자력기 조별예선경기가 벌어진 경기장에서는 《통일로국》, 《우리는 하나다》의 웨침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이날 경기에 출전한 북측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300여명의 응원자들은 꿩고리와 북을 치고 통일기를 흔들며 열정적으로 공화국축구 선수들을 응원하였다. 한 남성은 경기장 공화국기의 승리로 끝나자 감격을 금치 못해 경기장내까지 내려와 선수들을 열사안고 함께 기쁨을 나누였다. 참으로 감동없는 불수 없는 아름다운 화폭이었다. 경기장 끝난 후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이 구성한 《남북공동응원단》 사무국장은 《북측응원단이 오지 못해 실망이 크지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평화의 아시아경기대회가 되고 남북관계회복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다.》고 말하였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라고 할수 있었는가. 남조선당국의 비렬한 방해

인친의 하늘가에 공화국기가 펼쳐 나뉘고있다. 20일 공화국의 엄윤철선수가 남자력기 56kg급 경에서 세계기록을 수립하며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여 공화국기를 하늘높이 휘날렸다. 이어서 력기장자 김은국선수가, 여자력기선수 리정화, 여자체조선수 홍은정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따내 시상식에서 공화국기를 올리였다. 조국인민들과 남녀동포들은, 아시아인이 지켜보는 영예의 1등시상대에서 우리 선수들은 공화국기를 펼쳐대 감사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였다. 사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되는 남조선에서 공화국기는 반공화국대결세력들에 의해 끝없는 논란에 휩싸였었다. 공화국의 선수단이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것과 관련하여 진행된 북남실무협상에서 남측은 《공화국의 규격이 너무 크다.》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주장들을 내놓어 협상이 깨지게 했다. 경기대회가 진행되는 지

기을 응원하는 감동적인 모습도 펼쳐졌다. 동포애와 통일일망에 담은 남녀인민들의 응원 열의는 21일 김은국선수가 민족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고 단합을 이루려는 좋은 기회로 되도록 하기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고있다. 남조선의 민주로총은 1000명의 노동자동일응원단 《아리랑》을 조직하고 북과 남의 선수단이 참여하는 경기에서 동포애 어린 응원진을 펼쳐가고있으며 각계층 시민단체들도 5000여명의 《남북공동응원단》을 구성하고 북측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하고

김현일

남조선농민들 쌀시장개방을 반대하여 투쟁

남조선인민넷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18일 광주와 전라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당국의 쌀시장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 전개되었었다. 해남군에서는 여러 농민단체 대표들과 10여개 면의 농민회 성원들 등이 군청앞에서 집회를 가지였다.

한편 보성군에서도 농민들이 쌀시장개방의 위협성 에 대한 선전활동을 벌인것을 비롯하여 이날 모두 15개 시, 군에서 농민들은 집회,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동차와 트랙터로 선전활동과 시위를 벌이며 당국의 악정에 항거하였다. 본사기자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여당이 농민들에게 레의를 지키라고 하지만 쌀시장개방문을 국민들에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레의를 지키겠는가 격분을 터쳤다. 집회에서는 투쟁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자동차시위에 나섰다. 본사기자

모략적인 베라살포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반북베라는 증오와 보복을 낳는다.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이 미처 더럽게 미친것 같다. 모략적인 베라살포 어떤 후과를 미칠지 뻔히 알면서도, 공화국이 얼마나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가를 잘 알면서도 보란듯이 또 수십만장의 베라를 뿌려대고 보면 북남관계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와 끝까지 맞서 전쟁을 하자는 잡도리 같다. 우리측 지역에 대한 베라살포는 대포를 쏘아대는것보다 더 엄중한 도발행위이다. 그러우거기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경을 극도로 건드리고 북과 남의 불신과 대결을 최대로 격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하늘무서운줄 모르고 풍선을 마구 날리고

있었다. 그것을 배우에서 조종하고 보호하고 부추기는 장본인이 바로 남조선당국이다. 그러면서도 《통일》이니, 《관계개선》이니 운운하는것을 보면 나그죽이 두러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남쪽의 대결광신자들이 뿌려대는 베라 한장한장은 그들이 북남관계에 높이높이 쌓아가고 있는 불신의 장벽이고 전쟁의 시한표이다. 풍선이 터져 떨어지는 베라의 개수만큼 이제 증오와 보복의 불벼락들이 모략의 본거지들에 쏟아지게 된다는것을 대결광신자들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평양시 서성구역 장영2동 최현룡

것을 보면 세살적 버릇이 여든 간다는 조선속담을 그대로 런상케 한다. 대결광신자들에게는 말도 필요없다. 정벌의 동음을 휘둘러야 한다. 항해복도곡산군 장명수 불한당들

시자들의 가증스러운 베라살포 높음에 분노의 치를 떨고있다. 두루기 문제는 남조선의 인천에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겹쳐지고 그 공화국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그 지점에서 백주에 이러한 베라살포행위가 감행되고있는것이다. 현실은 남조선보수패당이야말로 심성한 국제경기대회도, 그에 참가한 동족의 성의도 안 좋게 비방중상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해치기 위한 불순한 흥계를 실현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남조선의 반통일보수패당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것 같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고있는 공화국의 천만국민은 지금 반통일대결광

겨레의 통일합성이 들리지 않는가

지금 남조선의 인천에서는 공화국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고있다. 이런 때에 인천과 멀리 떨어진 본계연선 남측지역에서 대결망나니들이 모략적인 베라살포를

음을 연속 벌리고있으니 조선민족의 한사람으로서 격분해 이가 갈리지 않을수 없다. 그들의 성과 귀에는 모처럼 화해와 단합의 불씨를 살려가려는 공화국의 선수단과 남녘의

반미대결전의 강력한 보루, 더욱 커진 전략적지위

흔히 어떤 나라가 지구상의 어느 위치에 자리잡고있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물론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전, 발전과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로 된다.

아시아대륙 동쪽 가운데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은 북부는 아시아 대륙과 잇닿아있고 동서쪽은 태평양과 면해있다. 주변 나라들을 보아도 압록강과 두만강너머에 중국과 러시아, 동해너머에 일본이 자리잡고있는 등 대국들의 한복판에 있는것이 조선이다.

한마디로 조선반도는 대륙으로 통하는 발판, 대양으로 나가는 길목이나 갈다고 할수 있다.

이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지하자원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조선은 오래전부터 유미 열강들이 리해관계를 다투는 각축전장으로 되어왔다.

근대에 들어와 청나라는 조선을 자기의 영향하에 두기 위해 간섭을 뻗쳐왔으며 일제기 《조선한론》을 들고나온 일본은 조선을 그들의 《생사가 걸린 땅》이라고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다로 침입하곤 하였다. 한편 《남하정책》 실현에 나섰던 러로서야도 조선에 눈독을 들이였으며 태평양너머에 있는 미국은 조선을 그들의 아시아와 대륙침공에 유리한 《단도》로 보면서

군침을 흘리었다. 이미 1866년에 《서면》호에 이어 1871년에 《합포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침략의 길에 나섰던 미국은 이 시기 일본을 적국 부추기는 방법으로 저들의 리권을 쟁취하려고 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원밑에 1894-1895년에 있는 청일전쟁과 1904-1905년의 로일전쟁에서 이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더욱 강화하였다. 하여 조선은 1905년 11월 망국적인 《을사5조약》과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의 날조로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었던것이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고 국력이 약한탓에 겪어야 했던 약소민족의 눈물겨운 신세였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해방을 맞은 조선이 국가창건에 앞서 정규무력창설에 힘을 넣은것은 국력이 약해 남의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 했던 민족수난의 피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한것이었다.

오늘 조선은 첨단과학기술의 정수인 인공위성도 자체의 힘으로 쌓올리는 행성의 몇 안되는 인공 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자

위의 든든한 핵억제력을 가진 군사강국으로 발달해왔다. 하여 오늘날 대륙과 어깨를 겨루는 강국으로 조선의 전략적지위는 비상이 커졌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국의 패권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다. 지난 2012년 오바마행정부는 저들이 유럽과 중동에 매달려있던동안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다시 힘을 집중한다는 이른바 《아시아태평양중심전략》(일명 《아시아회귀전략》, 《아시아재균형전략》)이라는것을 내뒀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시아의 동맹국들, 지역국가들과의 정치, 외교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우호세력을 확대하며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체결과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권대협정》 확대로 이 지역나라들을 저들의 경제적영향권에 넣는다는것이다. 군사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해군부력의 60%를 투입하고 미일과 미일-아프가니스탄, 미-러 군사공조》를 실현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립하려 하고있다.

그러나 오바마정부의 이러한 《아시아태평양중심전략》은 조선의 대미핵대결공세와 주변 나라들의 패권경쟁을 비롯한 세계적인 도전으로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미국은 자위적인 조선의 핵이 《위협》이라고 떠들면서 자국본토는 물론 유럽과 중동지역에 전개해있던 무력들까지 아태지역에 들이치는 한편 조선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각종 명목의 군사연습들을 해마다 벌려놓고있다. 최근 《맞춤형억제전략》이 정식 적용되고있는 《올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이 그 한 실례로 된다. 조선이 핵 및 미사일을 사용할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들을 동원하여 《선제공격》한다는것이 《맞춤형억제전략》의 골자이다. 미국은 그 무슨 《징후》니 뉘니 하며 이 전략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조선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에 미핵항공모함인 합동군사연습이라는 미명하에 조

선서해에 빼앗기 나타났던 사실과 미전략핵폭격기가 조선반도에서 여러차례 핵폭탄투하연습까지 감행한 사실들은 《맞춤형억제전략》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해주고있다.

이에 맞서 조선은 자위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적극적인 초강경대미공세로 맞받아 나아가고있다. 지난 8월 17일 조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책동은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핵전쟁연습들에 대처한 공화국의 자위적대응도 년례화, 정례화될것이라하는것을 선포하였다.

반세기이상 걸치는 조미대결은 조선이야말로 대륙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야망을 꺾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대미대결전의 강력한 보루라는것을 다시 한번 실증해주고있다.

만일 전략적으로써 자리잡고있는 조선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라크처럼 힘이 약하다면 청포무도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을 불러오게 되고 동북아시아, 행성의 평화와 안전이 심히 파괴되게 될것이다. 핵보유국이 된 조선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한 거대한 공적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다.

눈길을 잠시 《한국》으로 돌려보자. 오늘 갈수록 가려난 처지에 빠져들고있는것은 력대로 대국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사대와 굴종으로 살아가는 《한국》이다.

최근 미국과 조선반도의 주변국사이에서 그 무슨 《균형》을 잡아보겠다고 하면서 줄타기의교를 시도하던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점차 주변국과 대립하는데로 나아가고있다. 주변 나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THAAD》(싸드)의 《한국》배치를 추진하고있는것이 그러하다. 얼마전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가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가 《북핵공조》와 관계개선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용 계기로 중단하였던 외교국장급회담을 재개

한데 이어 8월 12만에서 진행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한》외교장관회담이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3각동맹구축과 대중국봉쇄를 목적으로 조선남해에서 벌려놓은 《(한), 미, 일, 해상수역주호련》에 참가하고 중국주도의 《아시안지초 시설투자은행》 설립에 참가하지 않음것이라고 밝힌 사실 등은 정치, 외교적으로 나안보, 경제적으로 미국의 손락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는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명백히 하건대 조선의 전략적지위는 그 누가 인정하고 인정한다고 하여 달라지는것이 아니다. 조선이 세계에서 열손가락안에 드는 당당한 핵보유국이 되고 그 운반수단까지 개발함으로써 그 전략적지위는 비할바없이 커졌다.

복잡다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조선이 노는 거대한 전략적 역할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리익만을 추구하는것은 군사안정판단이고 청맹파니력의 착오가 아닐수 없다.

자주로운성을 시종일관 견지하며 침략적인 외세에 단호히 맞받아나아가는 핵강국 조선은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며 대외의 흐름을 힘있게 추동해갈것이다.

지난 25일 공화국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각급 주권기관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모여 《헌법개정12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가 하루동안에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되는 주요 의안을 의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채택한데 대해 서방언론들은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다.

하지만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의 나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는 공화국에서는 너무도 러시아로운 일인것이다.

문득 수많은 아이들이 수장시교도 《세월》호특별법 제정이라는 의제를 놓고 허구한 날 입씨름으로 허송세월하고있는 남조선 《국회》의 실태가 떠오른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실종자유가족의 구제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해야 한다던 《세월》호특별법은 아직도 5개월째 《국회》에 머물러있다.

왜, 《국회》의 반수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유가족들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절대 넘겨줄수 없다고 하늘소발통의 고집을 세우며대문이다.

그때문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은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5월조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법안》들이 종이장으로 쌓여있어 남조선 《국회》는 《빈손국회》, 《립법제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받고있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하는 소리 또한 가판이다. 아무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식물국회》보다는 몸싸움을 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 《동물국회》가 오히려 낫다는것이다.

《레스링국회》, 《날치국회》, 《란장국회》라는 오명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과거의 몸싸움이 움츠러져 퇴살이나 몸이 근질

거리게 모양이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 이 말속에서도 인민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간에 저들의 불순한 당파적리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태도가 그대로 비껴 있다.

《세월》호특별법제정을 두고 여야간간에 일췌한 벌려온 그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노는 희락서니는 더 눈뜨고 못 볼 형편이다.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들을 놓고 보자.

지난 8월 21일 검찰은 부정부패를 일삼던 《새누리당》의 조현룡, 박상은 등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으로 출동하였다.

하지만 그 의원들은 검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손전화기를 끄고 차를 타고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의 말그대로 《백만환 강력사범을 통가할 정도의 치밀한 도주

《국회》, 《교관작전》을 펼치었던것이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10개의 부정부패로 구속기소된 박상은이 받아먹은 돈이 자그마치 12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기도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랑용하여 《치외법권》을 행사하려는 의원들, 두고 여야간간에 일췌한 벌려온 그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노는 희락서니는 더 눈뜨고 못 볼 형편이다.

《새누리당》 출신 《국회》의원들을 놓고 보자.

지난 8월 21일 검찰은 부정부패를 일삼던 《새누리당》의 조현룡, 박상은 등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으로 출동하였다.

하지만 그 의원들은 검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손전화기를 끄고 차를 타고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의 말그대로 《백만환 강력사범을 통가할 정도의 치밀한 도주

으로 자기 계수를 성취력한 김형태, 식당종업원인줄 알았다며 너기자를 성폭행한 최원희, 지금 《새누리당》 대표로 출진 나중업원을 성폭행한 김부성 등 《새누리당》의 성비례과정은 악성유전인자로 이어져온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은 TV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하였겠는가.

《세월》호참사의 유가족들은 특별법제정을 위해 길거리에서 단식을 하며 《국회》를 쳐다보고있는데 이른바 《국민의 대표》라는자들은 부정부패도 저들의 리속만 차리고 여성들을 희롱하며 《민생》의 간판아래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있으니 그들이 떠드는 《민생》이란 무엇인가를 독특히 알수 있게 한다.

인민의 대표로 구성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와 《국민의 대표》들이 자기만의 리익을 위해 랑장판을 치는 남조선 《국회》, 여기에도 북과 남의 편이한 정치와 인연상이 비껴있다.

남조선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를 둘러싸고 분주한 움직임들을 보이고있다. 얼마전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이 미국에 찾아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언기를 청탁하였다. 앞서 현 당국자도 《세월》호참사로 온 남념명이 초상집관으로 된 속에서도 미국대통령을 남조선에 끌어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달라고 구걸하는 추태를 부리었다.

며칠전에는 남조선과 미국의 군사교도간 회의를 벌여냈다. 국제적인 전환시기를 강조하는 미국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전환이 가능하리도 시기를 못박지 말자는 남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레노로 정해졌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언기하는데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고있다.

이미 지난 2012년 4월 미국이 남조선에 넘겨주기로 되어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리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해줄것을 간청하여 연기하더니 이제는 현 《정부》가 또다시 상전이를 2020년이후로 연기해줄것을 애원하는 는드보 되지 못할 망동을 부리고있으니

세상에 빼앗겼던 군통수권을 돌려받지 않겠다고 떠질하는 이런 일간망동이는 보기 드물다.

무던히도 미국의 바지방법을 불잡고 놓지 못하는 남조선당국이다. 마치도 미국이 없으면 살지 못할것처럼, 미국이 할애비이상이나 되는 것처럼.

그 모습은 꼭 사대와 민족허무주의에 얼이 속 빠져나라를 통채로 령강들의 각축당장에 돌락하는 리권쟁탈의 흥정판으로 내맡겼던 부정부패한 조선봉건왕조 말기시대를 방불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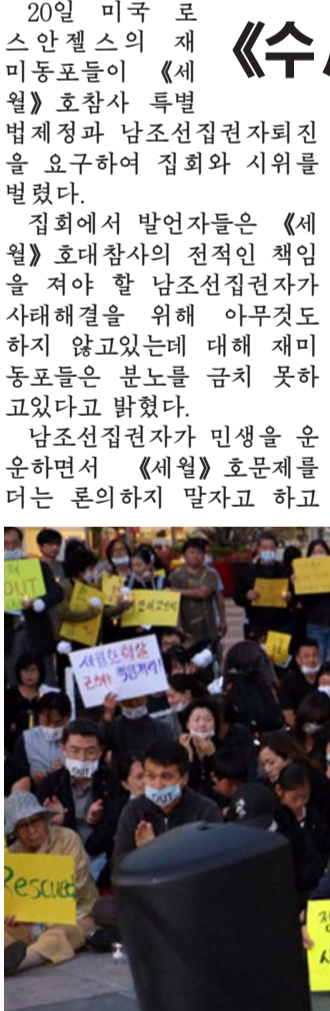
오늘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매일 친로파가 득세하면 로씨야군대가 인금을 호위하고 모래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군대가 대궐의 파수를 서는 판에 한 나라의 왕비가 궁궐안에서 외국메로단의 칼에 맞아죽고 왕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서 1년동안이나 갇혀있는가 하면 임금의 당아버지가 외국에 랑치되어가서 귀양살이를 하여도 오히려 사죄를 해야 되는 비참상이 이제 남쪽에서 다시 펼쳐지지 않는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수 있겠는가.

군사를 외국군대에 의탁하는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력사에는 외국부력의 간섭으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의 자주권이 침해당한 수많은 사실들을 기록하고있다. 미국이 수십년간 남조선의 군통수권을 장악하고 지금까지 놓지 않으려 하는것은 명백히 남조선은 어떻게 하나 틀어쥐고 전조선반도와 나아

가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이다.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애걸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를 인질로 삼아 남조선을 저들의 미사일방어 체계에 끌어들이고 남조선, 미국, 일본의 3각군사협력을 강화하려고 획책하고있는 미국이다. 그러나 이렇듯 위험한 침략세력을 한사코 등에 업고 동족대결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언장을 피하는것이야말로 그 얼마나 쓸개빠진 반민족적죄악인가.

동족을 해치기 위해 외세에 자주권을 무한정 내맡기면서도 그것을 조금도 수척로 생각지 않는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 겨레와 민족의 존망과 운명문제를 먼저 생각할 대신 침략적인 외세에 빌어먹이 잔명을 유지하고 《승공동일》, 《홍수통일》의 어리석은 야망실현에 만 더 신경을 쓰는 사대매국노집단.

사람들이 력사를 돌이켜보는것은 거기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의존으로 망국의 운명이 기다려지고있던 조선봉건왕조의 비참한 처지를 새겨보아야 한다. 외세의존에 매국이 있고 민족공조에 애국이 있는것을 남조선당국은 독특히 명심해야 한다. 진정 겨레와 민족을 위한다면 부질없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언기놀음에만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길에 진심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20일 미국 로스안젤스의 재미동포들이 《세월》호참사 특별법제정과 남조선집권자퇴진을 요구하여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세월》호대참사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남조선집권자사태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재미동포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남조선집권자가 민생을 운운하면서 《세월》호특별법을 논하지 말고라고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해 외 동 포 들 투 쟁 전 개

있다고 규탄하였다.

더우기 특별법을 제정하여 참사진상을 밝힐것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남조선 각계층에게 가만히 있을것을 강박해나서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집권자가 늘어놓고있는 민생이라는것은 물가인상문제나 서민생활해결을 위한것이 아니라 의료부분 민영화화비 비롯한 재벌들의 리익만을 위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제정되어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투쟁하며 현 《정권》퇴진운동에 모든 힘을 다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이날 미국의 뉴욕, 애틀란타, 워싱턴, 필라델피아, 보스턴, 휴스턴 등지와 캐나다의 오타와에서도 동포들의 시위투쟁이 벌어졌다.

본사기자 김 정 렬

를 넘는 뻔한힘에 치를 떨며 분노를 터렸다.

그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제정되어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투쟁하며 현 《정권》퇴진운동에 모든 힘을 다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이날 미국의 뉴욕, 애틀란타, 워싱턴, 필라델피아, 보스턴, 휴스턴 등지와 캐나다의 오타와에서도 동포들의 시위투쟁이 벌어졌다.

본사기자

도 두렵다.》며 언제 한번 발원점을 못 자고있는 형편인입니다.

인민들이 눈물과 울분으로 날과 달을 보내는 반면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재벌들로부터 수십억대의 돈을 받아먹으며 흉야 리랑야라 하고있습니다.

《새로운 세상》? 99%의 백성이야 죽든살든 1% 저희들만 잘사는 세상을 말하는

유가족들은 단식을 한다. 상소문을 올린다 하며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예를 쓰지만 《새누리당》은 그들을 가리켜 《로속자》라고 비하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수 없다고 하늘소발통같은 고집을 세우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은 다섯달째 공리공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유가족을 비롯

베라는 기를 쓰고 부러리고 있지, 북이 베라살포에 대한 태도를 놓고 《대화》리령의 진정성을 보겠다고 했는데도 소기에 경이금식으로 아예 귀막고있지요.

저들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대혁신》을 했건간 그식이 장식이니 지금 떠드는 《대혁신》도 새빨간 거짓말이 분명한것입니다.

《개헌》을 하던, 《정치혁신》을 하던, 《선거방식》을 바꾸던 저들의 리익에 맞지 않으면 또 저들의 집권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금시 뒤집어버릴건 뻔하니까요.

《민주공화당》에서 시작하여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대혁신》까지 이른바 《대혁신》이라고 부르던 《대혁신》도 새빨간 거짓말이 분명한것입니다.

《대혁신》이 아니라 씩고 《새누리당》을 아예 부러져 들어야 합니다.

미사일방위체계의 구축을 반대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6일 서울의 광화문주변과 국방부청사 앞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을 반대하는 평화집회를 가지었다.

집회에서는 발언자들은 이날 국방부에서 남조선과 미국이 고위급회의가 진행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회의에서는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에 따라 전환여부를 결정하거나 서로 공유할수 있는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면서 당국이 전환시기를 무기한 연기를 반대하는 리장을 명백히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미사일방위체계의 핵심인 고고도요격미사일이 남조선에 배치되면 남조선이 이 체계에 의한 자국의 전초기지가 되어 동북아시아의 갈등만 고조시키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미사일방위체계의 구축을

이번엔 《대혁신》?

만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돈 있으면 죄도 없고 돈 없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유전부패, 무진필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고 자살률은 10년째 여전히 《세계1위》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이 아닙니다.

또 《세월》호참사를 비롯하여 서울지하철 열차충돌사고, 고양화재사고, 창성로야병원화재사고 등 끔찍한 대형사고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인민들은 《자고 일어났면 사고, 또 사고, 깨어나면 슬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까봐 잠을 자기

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지금의 《정권》을 《MB 2기정부》라고 평하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한그릇에 담은다》는 말도 보라빛 《공약》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새 당마크를 내놓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미소를 상징하는 입술의 모양》이고 세워서 보면 귀모양이어서 《국민의 소리를 들겠다.》고 하였습

그런데 《세월》호특별법 제정만 놓고보십시오.

한 인민들의 분노의 목소리엔 아예 귀막고있습니다. 안 듣는게 그것뿐이 아닙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그만두라고 얼마나 애리게 해칩니까. 그런데도 들은척도 안하고 쥐잡아먹는 새빨간 고입술로 《동맹》이니, 《안보》이니, 《대혁신》이라고 부르던 《대혁신》도 새빨간 거짓말이 분명한것입니다.

《대혁신》이 아니라 씩고 《새누리당》을 아예 부러져 들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하는것이 남조선과 미국, 일본사이 랑해가서형태로 체결하게 될 군사협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체결되면 남조선과 일본사이 군사적관계가 정보, 작전, 군사분야에도 확대되어 사실상 3각군사동맹을 형성하게 된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군사적으로 종속되게 하는 협정체결동은 당사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대혁신》이 아니라 씩고 《새누리당》을 아예 부러져 들어야 합니다.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조선의 교육제도

국제사회계가 찬양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 밑에 교육의 나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며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가는 사회주의조선은 국제사회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로씨야 전련맹블레비코프 산담은 조선로동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는 전기간 후대교육사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왔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찬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제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교육제도를 세워주시었다.

탁월한 국가정치활동가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장 엄격한 시련의 시기에 무로교육제를 변함없이 실시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교육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주체적인 교육사

상을 제시하시였으며 해방후 훌륭한 교육제도를 세우시고 인재육성사업을 전담성있게 추진하시었다.

조선은 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교육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었다.

동방에서 제일먼저 전반적인 초등 및 중등의무교육제를 내온 조선은 1960년대에 전반적9년제기술무교육을, 1970년대초에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반적11년제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교육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조선의 전반적12년제무교육제는 정보산업시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교육제도이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은 조선은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

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도 발전하였다. 농치지 말아야 할것은 조선에서의 모든 교육이 무로라는데있다. 도처에 꾸러진 교육기자들이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발전을 적극 추

진하고 있다. 오늘 조선이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오르고 경제의 여러 부문이 최첨단기술로 장비되는 등 과학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선것만 놓고보아도 조선의 교육이 어느만한 수준에 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브라질주제사상연구센터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교육부문 단위에 수많은 현대적인 교육실비와 체육기자재들을 보내주시였으며 새 학년도 개학식의 의의있게 진행되도록 하신데 대하여 전하면서 조선의 학생들은 김일성주석에서 마련해주시고 김정일동지께서 발전시켜오신 교육제도, 오늘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어나가시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교육제도의 혜택

에서 무로로 마음껏 공부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국원의회는 조선의 교육제도는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교육제도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조선의 교육제도는 사회의 일반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경제의 여러 부문이 최첨단기술로 장비되는 등 과학기술을 많이 배출하고있다.

최근년간 국제수학올림피아드를 비롯한 세계적 학과경연들과 국제공클에서 조선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련이어 우승하고있는 현실은 조선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증명해주고있다.

조선에는 고등교육체제도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모든 조건이 충분한 구비된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학생들은 무로로, 지어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하고있다.

또한 공장대학, 직장대학 등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일정한 직업 가진 근로자들에게 기초과학기술과

전문기술을 가르쳐주고있다. 도이칠란드 MS러행사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에서는 사회주의교육체제의 빛아래 지식인대군이 자라났다. 조선의 사회주의교육이 키워낸 인적자원은 강성국가건설의 훌륭한 밑천으로 되고 있다.

현대과학기술의 정수이며 국가경제잠재력의 파시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조선에서는 100% 자기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거하여 성공시켰다.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적인 첨단기술의 하나인 CNC기술의 명맥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 널리 도입하였다.

또한 핵기술,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교육 등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도 세계를 놀래우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고 있다.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적인 전진을 이룩하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사회주의교육체제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본사기자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로부터 호평받는 병원

평양천선병원은 공화국에 주재하고있거나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자주 찾아와 치료를 받는 병원이다.

예로부터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낫설고 물설은 땅에서 병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걱정부터 앞서게 될것이다. 하지만 이 병원을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그러한 우려와 걱정은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갓가지 꽃과 나무들이 숲을 이룬 주위환경은 병원이란 감을 전혀 주지 않는다. 아담하게 보이는 외래병동과 입원실병동에는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을 갖춘 30여개의 전문과들이 있어 어떤 병이나 다 치료할수 있다.

의사, 간호원들의 수준 또한 높다. 이들은 다 대학과 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가들로서 자신들이 인간생명의 기사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있다.

언제나 친절하면서도 사심 없는 태도, 환자들에게 바쳐지는 아낌없는 지성에서 친

혈육에서만 느낄수 있는 따뜻한 정이 느껴진다. 때로 환자의 머리맡에서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고 자기 손으로 보약과 벌꿀까지 만들어 환자치료에 이바지한 이야기며 생일상까지 차려준 이야기는 이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의술은 인술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들의 정성으로 병을 털고 일어나 생명을 되찾은 기적같은 이야기들은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오래동안 고생하던 탈모증을 고치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되찾은 이진 중국주재 팔레스티나대사관 참사의 딸이었던 루바 자베르며 1991년부터 16년동안이나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강북심상공인의 딸 황순에너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이 병원에서 꽃핀것이다.

하기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해외동포 정기월과 로길남, 레미순을 비롯한 해

외동포들은 한결같이 같은 동포한테서 치료를 받으니까 마음이 좋다. 의사, 간호원들이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만들어 낸 환자치료에 이바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병원이 자기 집처럼 여겨진다. 계속 오고싶다고 자기들의 심정을 토로 하였다.

《이렇듯 고마운 보건제도가 이 세상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는 이 제도가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할 제도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어찌 불치의 병을 고치고 대치를 확보하게 된 세종동포 정숙현만의 심정이겠는가.

한방울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이의 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자기 집처럼 여기는 병원.

이들의 솔직한 고백은 그대로 인간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의 우월한 보건시설에 대한 찬사인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운동도 하고 격수도 맞으며...

평양시 만경대구역 화초공원을 찾아서

평양시내의 이르는 곳마다에 체육공원, 아동공원, 화초공원들이 훌륭히 꾸려져 사람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평양시 만경대구역 정인리아리에 위치한 화초공원도 그중의 하나이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의 눈앞에는 홍초, 나팔꽃, 천수국, 만수국, 맨드라미, 불꽃 등 수십여종의 화초들이 활짝 피어나 아름다운 경치를 펼쳐고 있었다.

다리밟의 공지를 리용하여 꾸린 공원인지라 부지는 비록 넓지 않아도 모래래배구장, 탁구장, 정구장, 활쏘기장, 사격장, 미니골프장 등

체육 및 문화오락을 즐길수 있는 시설들이 그쁘히 갖추어져있다.

가사와 만민 이곳 공원의 리춘실관리원은 꾸러진지 얼마 안되지만 매일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체력을 단련하고있다고 말해주었다. 때마다 공원의 모래래배구장에서는 《국제로인의 날》을 앞두고 만경대구역 팔팔1동과 당상2동사이에 배구예선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선수들은 모두 로인들이었

지만 공을 땀시있게 타격하는 모습이며 능숙한 동작으로 방어를 하는 그들을 보느라 하나같이 이팔청춘 못지않았다. 그런가하면 꽃파리와 복을 두드리며 응원하는 인민반사람들의 열기만 모습도 볼만 했다. 훌륭하게 꾸려진 공원에서 60명, 90환갑을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느라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 소냐 하는 노래구절이 절로 흘러나왔다.

이어 탁구장으로 걸음을 옮긴 기자들의 눈앞에 아버지와 딸이 진행하는 탁구경기가 안겨왔다. 전문선수들 못지않게 치밀한 공격과 방어로 일관된 경기의 쉽게 승부가 날것 같지 않았다.

《우리 영춘이 이겨라!》 하고 열심히 딸을 응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다른 응원자들도 합세했다. 당상2동 23명에 산다는 김옥희녀성은 남편과 딸이 이곳에서 탁구경기를 즐겨 하는데 하루가 다르게 탁구실력이 높아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즐거움과 량만에 넘친 사람들의 모습은 정구장과 사격장, 활쏘기장, 미니골프장의 어디서나 볼수 있었다.

더욱 인상깊은것은 금강산과 묘향산의 기업철벽들을 그대로 옮겨놓은듯싶은 인공마위산의 덕수터였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자 최철진은 《이곳에서 운동도 하고 덕수도 맞느라만 쌓았던 피로가 순간에 다 풀린다.》고 흥에 떠서 말하였다. 최철진의 희열과 량만에 넘친 사람들의 떠들썩한 모습을 기뻐하며 바라보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김철호

본사기자 김철호



제12차 전국조선옷전시회 진행

제12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15일부터 17일까지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전시회에는 옷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각지 공장, 기업소, 편의양복점들의 기술자, 기능공들과 교육, 연구기관의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하였다.

일상옷, 명절옷, 결혼식옷, 어린이옷을 비롯한 조선옷들과 남매계절옷 1200여점이 전시회에 출품되었으며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곳을 방문하였다.

옷차림에서도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대성구역종합양복점, 원산시편의봉사관리소



동해조선옷점, 신의주시편의봉사관리소 청송조선옷점에 조선여성들의 몸매와 정서에 맞게 아름답고 세련된 곡선미를 살리고 부드러운 색채를 잘 조화시킨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나이와 기호에 따라 선택합과 무늬구성을 잘하여 료동적이면서도 현대적미를 띠

준 다양한 형태의 계절옷들도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에서는 우수한 단체들과 참가자들에게 순회우승기와 깃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식이 있었다.

은 나라에 민족의 향기를 더해주고있는 우리의 옷을 더욱 발전보급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계기로 되었다. 본사기자

이에 못지 않게 어느때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있다. 도처에 있는 체육기자재상점들이다. 날이 갈수록 달아오르는 대중체육기는 체육기자재상점 봉사자들에게도 바쁜 일상을 안겨주고 있다.

이곳 체육기자재상점이 류달리 많은 손님들로 흥성이

는 이유는 있다. 여기에 으면 축구공, 배구공, 룡구공과 같은 공류와 탁구채, 정구채, 바드민톤채를 비롯한 각종 체류, 마라손화, 축구화, 룡구화 등 신발류, 호수별에 따르는 경기복 및 훈련복으로부터 야령, 구간, 손잡이 키구기, 텀플, 호가 등과 같은 보조기자재들에 이르기까지 요구대로 구입할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산 상표를

체육기자재구입으로 흥성이다

《탁구채와 탁구공이 있습니까?》, 《새로 들어온 배구공을 하나 봅시다.》하며 저마끔 체육기자재들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소학교 축구선수인 손자녀석이 어찌나 별찬지 운동복을 당해내지 못하겠다.》며 얼마전 전선에서는 우리 시의 학교시적으로 진행된 축구경기에서 1등을 했다고 한바탕 자랑을 늘어놓는 할머니도 있다.

이곳 체육기자재상점이 류달리 많은 손님들로 흥성이

는 이유는 있다. 여기에 으면 축구공, 배구공, 룡구공과 같은 공류와 탁구채, 정구채, 바드민톤채를 비롯한 각종 체류, 마라손화, 축구화, 룡구화 등 신발류, 호수별에 따르는 경기복 및 훈련복으로부터 야령, 구간, 손잡이 키구기, 텀플, 호가 등과 같은 보조기자재들에 이르기까지 요구대로 구입할수 있다.

최근에는 국내산 상표를

단 질종교 다양한 체육기자재들이 많이 들어와 호평을 받고있다. 그래서인지 상점안에 들어와 여러 단위에 들어선 생산된 같은 종류의 체육기자재들을 번갈아보며 어느것을 살것인가 망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생산단위들사이에서 벌어지는 기술경쟁, 제품의 질적경쟁영역을 엿볼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곳 상점의 림경희(41살)씨에 따르면 《(대성산) 상표를 단 축구공, 배구공, 룡구공들의 질이 높아 수입산 제품 못지 않다며 특히 청소년체육 학교 학생들과 체육애호가들속에서 인기가 높다.》고 말한다.

그는 15년간 체육기자재상점에서 일해 오지만 요즘처럼 체육기자재에 대한 사람들

의 열의가 높은것을 보지 못했다며 어떤 때는 손님들의 다양한 수요를 미처 충족시키지 못해 안타까울 때도 없지 않다고 말한다.

이곳 상점의 봉사자들은 대중체육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기자재들에 대한 체육애호가들의 수요를 미리미리 장악하여 일러와 가정들에게

지 찾아가 주문봉사를 해주었고는 누구나 좋아하고있다고 한다. 체육기자재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료해하여 생산단위들이 나가 제때에 알려줌으로써 제품의 질적고에도 한몫 하고있다.

물아보는 인생길엔 열매 익어 주렁지고 바라보는 여성길엔 행복 넘칠 우리 생활 ... 본사기자 홍범식



새롭게 보는 개성성의 역사

* 조선 - 프랑스 개성성 공동조사 발굴 전시회 개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은 2011년 9월 26일부터 2013년 10월까지 개성성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개성성과 남대문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과 300여점의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개성성의 역사적 및 문화사적지위

반란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조선의 민족유산들 가운데는 오랜 력사유적인 개성성도 있다. 개성은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의 수도로서 왕건이 918년에 고려국가를 세우고 자연지리적조건이 유리한 개성에 수도를 정한 때로부터 500년간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방비하기 위해 건설된 개성성은 그 력사가 매우 오래다.

현재 있는 조선민속박물관에서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의 공동명의로 조선-프랑스 개성성공동조사발굴전시회의 막이 올랐다.

확히 확정하고 그 현존상태를 료해하였다. 또한 개성성의 성벽과 성문, 성곽시설(옹성과 치, 수구문터)들의 치와 보존상태가 종합되었다.

제1차 공동조사 개성성의 전구간에 대한 료해와 보존상태의 확인을 위주로 하였다면 2012년 6월초부터 시작된 제2차 공동조사는 개성성의 일부 제한된 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료해와 현지확인 목적적으로 진행되었다.

두번째로 진행된 조사과정에서 외성 서벽과 발어참성 동벽 두 구간을 서로 비교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일가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외성 서쪽면이 인공적인 성벽들의 연장선이라던 발어참성 동쪽은 성벽과 천연바위굴과 교차 또는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여 외성 서쪽성벽들은 그 연장선에 있어서 비교적 끈김이 없지 않 남아있는 반면에 발어참성 동쪽성벽들은 거의나 무너져 성벽의 일단이나 기초 돌들만 남아있었다. 두 구간의 성돌들의 모양과 축조양상도 서로 완전히 다른 점

을 보이고있는데 이것은 험한 산세와 지형의 제약을 많이 받은 결과이다.

2013년 9월 25일부터 시작된 제3차 공동조사는 개성성 외성의 남서쪽부분의 토성구간과 금요문터부근으로부터 남서쪽사이의 돌성벽구간을 기본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개성성 외성 남서쪽부분 토성벽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외성 북쪽벽의 돌성벽과 치를 비롯한 성곽시설물들의 축조형식과 방법에 대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 3차례에 걸친 개성성에 대한 공동조사과정은 개성성의 구조와 형태, 축조기술이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이 과정에 개성성의 위치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고 고려시기 우리 민족의 높은 성곽조각술과 방법들을 연구하는데서 의의를 가지는 고고학적발굴과 자료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성성의 력사적지위와 문화사적의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문무에는 그 무게가 14t이나 되는 연복사종이 걸려있다. 이 종은 고려시기인 1346년에 주조되어 남대문밖의 연복사라는 절에 있었던 것인데 1563년 조선봉건왕조시기 이 절이 불에 탄 다음 옮겨 오게 되었다. 종에는 고려말 이름난 학자 류곡이 쓴 명문이 새겨져있다. 20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개성남대문의 문무결에는 이 종을 달았던 종각이 있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도시건설계획》이라는 구실밑에 남대문을 파괴하려다가 개성인민들의 강력한 항거가 부딪치게 되자 남대문역의 종각과 돌성벽을 끝내 헐어버렸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불타버렸던 남대문문루는 1955년에 원상대로 복구되었다.

남대문의 두공은 포식두공으로서 짧은 소회형체공에 청자를 맞추어 안팎 3모로 짜출했는데 안쪽으로 장어를 겁으로 놓고 그가운데에 화반을 끼우는 방법으로 특색있게 하였다. 날아갈듯이 가볍게 쳐든 지붕의 주너는 균건히 서있는 몸체에 어울리게 경쾌한 모습으로 형성하고 추너마루에는 여러가지 장식들이 있다. 원래 남대문문루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 개성의 명필 한호(호는 석봉)가 쓴 현판이 있었는데 전쟁시기 남대문문루와 함께 불타버렸다.

개성남대문은 고려시기의 우수한 건축수법과 기교를

다시 알려진 남대문의 높이

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은 개성성에 대한 공동조사과정에서 남대문에 대한 발굴도 진행하였다.

개성성과 남대문에 대한 여러차례의 공동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발굴된 수백여점의 것과 유물들과 자기류, 기타 유물들의 일부가 전시회장에 진열되어있다.

개성남대문은 1391년부터 1393년 사이에 축조된 개성성 내성의 남쪽대문으로서 내성의 여러 성문들 가운데서 가장 크고 훌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대문은 현재 개성시 북안동의 중심거리에 자리잡고있다. 남대문은 홍예문형식의 축대우에 합각사 단층문루로 구성되어있는데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되어있다.

현재 문루에는 그 무게가 14t이나 되는 연복사종이 걸려있다. 이 종은 고려시기인 1346년에 주조되어 남대문밖의 연복사라는 절에 있었던 것인데 1563년 조선봉건왕조시기 이 절이 불에 탄 다음 옮겨 오게 되었다. 종에는 고려말 이름난 학자 류곡이 쓴 명문이 새겨져있다. 20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개성남대문의 문무결에는 이 종을 달았던 종각이 있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도시건설계획》이라는 구실밑에 남대문을 파괴하려다가 개성인민들의 강력한 항거가 부딪치게 되자 남대문역의 종각과 돌성벽을 끝내 헐어버렸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불타버렸던 남대문문루는 1955년에 원상대로 복구되었다.

남대문의 두공은 포식두공으로서 짧은 소회형체공에 청자를 맞추어 안팎 3모로 짜출했는데 안쪽으로 장어를 겁으로 놓고 그가운데에 화반을 끼우는 방법으로 특색있게 하였다. 날아갈듯이 가볍게 쳐든 지붕의 주너는 균건히 서있는 몸체에 어울리게 경쾌한 모습으로 형성하고 추너마루에는 여러가지 장식들이 있다. 원래 남대문문루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 개성의 명필 한호(호는 석봉)가 쓴 현판이 있었는데 전쟁시기 남대문문루와 함께 불타버렸다.

개성남대문은 고려시기의 우수한 건축수법과 기교를

보여주는 건물유적으로서 우리 나라 옛 건축유산들중의 하나이다.

3차례에 걸친 개성성의 남대문발굴과정에서 축대의 하부구조와 높이, 축대의 남쪽부분을 옮겨쌓았다는 고고학적자료들, 고려시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유산들, 도로시설들의 변화과정과 시설물들을 새롭게 해명하였으며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었다.

특히 남대문의 축대가 현재 도로면으로 3단 물려있고 그 밑에 한단의 기반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남대문축조당시의 축대가 206cm~210cm 정도 땅에 묻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새로 발굴된 자료에 기초하여 현재 3.25m인 남대문의 원래 높이는 5m인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공동조사발굴전시회장에는 남대문발굴현면도와 함께 시기별 문화유산들과 남대문의 정면도와 측면도를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유산은 사람들이 살던 흔적이 땅속에 묻

혀 있을 수 있다. 남대문의 문화유산을 고려말기로부터 현대시기까지 네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발굴과정에서 문화유산들에서는 여러 유물들이 나왔다.

이밖에 전시회장에는 고려말이 전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각이한 도로면들의 건설시기와 특징들을 보여주는 사진과 모식도들도 전시되어있다.

남대문의 7호발굴공과 8호발굴공의 축대아래상태를 보여주는 사진과 모식도를 통하여 고려말기 성축대기초시설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8호발굴공 무지개문입구의 기반과 도로시설은 고려말기 도로상태에 대하여 보여주는 것으로서 무지개문(홍예문)벽을 따라 큰돌들로 경계를 이루고 그 안쪽에 보다 작은 돌들로 웃면을 맞추어 남대문도로바닥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또한 8호발굴공에서 나온 문화유물들로 볼 때 남대문의 남쪽축대부분이 홍예문너미만큼 옮겨 쌓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3호, 2호, 8호발굴공에서 나온 도로시설들은 조선봉건왕조시기 남대문의 도로상태에 대한 리



조선의 훌륭한 전통을 좋아한다

기자는 조선-프랑스 개성성공동조사발굴전시회에 참가한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 조진만도담 단국대학교 조진-프랑스 개성성고고조사 발굴 및 전시회대상 계획담당자인 엘리자베트 샤바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조선과 프랑스 사이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동조사발굴 전시회에 대한 심정이 남다른데 어떤가요?

엘리자베트 샤바: 이번 공동조사발굴 전시회를 통하여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과 조선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의 공동조사의 첫 결과를 소개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 자신으로서도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개성성에 대한 연구사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은 쉽지 않은 기회라고 본다.

기자: 어떻게 되어 개성성에 대한 조사발굴을 하게 되었는가?

엘리자베트 샤바: 나는 조선 력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이다. 언제인가 세나라시기의 무덤을 비롯한 유적들을 돌아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조선의 력사를 연구해보고 싶은 욕망을 품게 되었다.

기자: 어떻게 되어 개성성에 대한 조사발굴을 하게 되었는가?

엘리자베트 샤바: 나는 조선 력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이다. 언제인가 세나라시기의 무덤을 비롯한 유적들을 돌아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조선의 력사를 연구해보고 싶은 욕망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세나라시기의 무덤 연구》라는 박사학위를 얻게 되었다. 조선의 력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에 현존되어 수습된 동안이나 발굴사업을 진행해오고있다.

몇해전부터는 개성의 력사유적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의 지지를 받고 외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개성성에 대한 공동조사발굴이 진행되고 있다.

기자: 공동조사발굴 과정에 저지 않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엘리자베트 샤바: 우리가 처음에 개성성을 공동으로 조사할 때부터는 기본적으로 두문제는 개성성의 력사와 건축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이었다. 개성성조사발굴은 이미 발굴되었던 자료들을 참고로 하면서 개성성의 위치와 보수과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새롭게 확정하였다. 조사발굴을 자료와 사진으로 남기면서 연구사업을 심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기자: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남대문이었다. 이번 남대문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면서 원래 높이를 다시 새롭게 확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원래의 남대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컸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번에 남대문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면서 원래 높이를 다시 새롭게 확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원래의 남대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컸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번에 남대문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면서 원래 높이를 다시 새롭게 확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원래의 남대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컸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번에 남대문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면서 원래 높이를 다시 새롭게 확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원래의 남대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컸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번에 남대문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면서 원래 높이를 다시 새롭게 확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원래의 남대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컸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번에 남대문에 대한 발굴을 진행하면서 원래 높이를 다시 새롭게 확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 원래의 남대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컸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제일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은 1898년에 설립되었다. 세계 각지의 고고조사발굴연구와 이 분야의 전문가양성 사업을 하고있다.

이 연구원이 19세기말부터 해외에서 진행해오고있는 고고발굴사업은 해당 나라 벗

프랑스 국립극동연구원

들과의 공동사업을 통해 오

는 성과를 올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

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은 1898년에 설립되었다. 세계 각지의 고고조사발굴연구와 이 분야의 전문가양성 사업을 하고있다.

이 연구원이 19세기말부터 해외에서 진행해오고있는 고고발굴사업은 해당 나라 벗

는 성과를 올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

랑스 국립극동연구원은 1898년에 설립되었다. 세계 각지의 고고조사발굴연구와 이 분야의 전문가양성 사업을 하고있다.

이 연구원이 19세기말부터 해외에서 진행해오고있는 고고발굴사업은 해당 나라 벗

는 성과를 올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족유산보호지도국과 프

양호당집과 개성편수 (2)

글 정의선, 그림 김윤일

《셋째형님! 옛물에 이르기를 입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손국은 못말장정 역적들과 한동아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부부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하였던 셋째형님은 어찌하여 순결한 아버님의 뜻을 받들려 하지 않아 아버님을 노엽히나. 저는 아버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둘째아들 홍부는 《아버님,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리성계가 왕위를 찬탈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도 불사제군으로 고려의 신하로 죽을망정 역적의 편으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 날 홍장군은 곧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

향을 표시하지 않았다. (홍강은 조선봉건왕조가 서자 조정의 벼슬을 하면서 호의 호식하였다.)

양호당은 다음날 입금이 자기에게 수여한 여러장의 관리명장을 들고 왕궁에 들어가 입금에게 바치고 눈물을 흘리며 입금을 하직하였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 바람으로 왕궁에 들어갈 때 입었던 조복을 벗어서 뒤뜰에서 손수 불태워버리면서 또 눈물을 지었다.

한편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와 높은 관직에 오른 정도전 등은 리성계에게 사례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리성계와 정도전, 정도전 등은 서로 사례하고 위로하면서 손들을 붙잡고 눈물까지 흘렸다. 리성계는 위로연이 새 왕조를 산생시키는 희화로 되었다. 정도전이 먼저 입

금을 열어왔다. 《시중대감님, 우리의 저사를 빨리 단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놀들이 입금을 피우 우리에게 선손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정도전이 동의 표시하며 말했다. 《홍소이다. 그건 리자겸한테 입금이 자기 외조부이며 장인인 리자겸의 세력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바로 리자겸의 총부장군인 탁준경을 피워서 리자겸을 치지 않았소이까. 입금을 허수아비로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거사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소이다.》

이 말을 들은 리성계는 눈을 꼭 감고 머리를 꺼먹거리었다.

이 날 급급히 모의한 것은 입금이 그 누구와도 접촉 못하게 연구상례에 두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고려왕족들도 그 누구와도 연계를 못하게 경

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몽주 측근 재상들을 빨리 제거하며 중간에서 통용하는 자들은 구슬리기도 하고 위협도 해서 우리 쪽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는 것이었다. 이때 정도전이 양호당을 없애버리고 하였다. 그러나 리성계가 반대하였다. 《그건 안돼. 우현보는 이전 송강이나 다름없어. 만일 그를 정몽주와 파로 몰아 심문한다면 송강은 준이나 도전이나 규탄을 받을걸세. 그렇다 그 정몽주처럼 암살해버렸다간 우리에게 대한 비난의 목소리만 더 높아지고 민심은 우리에게 저버릴수 있어. 그러니 우현보는 당분간 다치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되어 양호당의 생명이 얼마간 유지되었다. 이날 모임이 있던 후 리성계 입금은 전격적으로 정변준비를 다그쳤다. 이하에서 역달후인 7월에 공양왕은 원주로 추방되고 조선봉건왕조의 수립이 세상에 공포되었다.

새 왕조를 세운 리성계는 양호당에 사형을 내주었다. 개경장안의 골목마대에 의

해서 매일과 같이 의금부 호두각에서는 고려 충신들을 잡아다 신문, 고문, 처형하였다. 특히 고려 왕족계열의 왕씨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더욱 심했다. 누가 어떤 왕족을 기고 고려국을 재생양호도 시도할가봐 그 사소한 일도도 짓밟아버리기 위해서다. 왕씨가문에 대하여

금부, 사헌부, 형조, 포도청의 라줄, 군판, 라장들과 물관들이 짜다며 수색, 심문, 체포하고 나라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신음소리, 비명소리, 통곡소리가 골목마다에서 진동했다. 이 집자 집 대문이 부서지고 화본대의 꽃잎들이 박산났으며 깨어진 장독에서 흘러내린 절

복마전을 린상시켰다. 이통에 양호당의 만머느리번씨의 아버지인 오빠도 정몽주의 일파로 탄압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친정아버지와 오빠의 비보를 들은 번씨부인은 통곡을 하다가 하늘을 부르며 《이 역적놈들아, 네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웨치고는 기절까지 하였다.

1393년 3월 보름날이다. 이날 양호당의 회갑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환갑상도 차려드리고 환갑연을 크게 베풀어 늘 울적하게 지내시는 아버지에게 이날 하루라도 기쁨을 드리라고 그 준비를 서둘렀다. 이것을 눈치챈 양호당은 자식들을 불러놓고 엄하게 말했다. 《보아하니 너희들이 내 환갑을 차려주고 서두르는 것 같은데 딱 걸여치려라. 내가 망하고는 장안이 초상남 집처럼 목숨이 높는데 무슨 놀의 환갑이냐? 환갑이고 뭐고 부산을 피우지 말아라.》

아들들은 찬했다. 만아들 홍수사 생각과 못해 아버지에게 간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둘째아들 홍부는 《아버님,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리성계가 왕위를 찬탈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도 불사제군으로 고려의 신하로 죽을망정 역적의 편으로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말했다. 이 날 홍장군은 곧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

향을 표시하지 않았다. (홍강은 조선봉건왕조가 서자 조정의 벼슬을 하면서 호의 호식하였다.)

양호당은 다음날 입금이 자기에게 수여한 여러장의 관리명장을 들고 왕궁에 들어가 입금에게 바치고 눈물을 흘리며 입금을 하직하였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 바람으로 왕궁에 들어갈 때 입었던 조복을 벗어서 뒤뜰에서 손수 불태워버리면서 또 눈물을 지었다.

한편 귀양살이에서 풀려나와 높은 관직에 오른 정도전 등은 리성계에게 사례하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리성계와 정도전, 정도전 등은 서로 사례하고 위로하면서 손들을 붙잡고 눈물까지 흘렸다. 리성계는 위로연이 새 왕조를 산생시키는 희화로 되었다. 정도전이 먼저 입

금을 열어왔다. 《시중대감님, 우리의 저사를 빨리 단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놀들이 입금을 피우 우리에게 선손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정도전이 동의 표시하며 말했다. 《홍소이다. 그건 리자겸한테 입금이 자기 외조부이며 장인인 리자겸의 세력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바로 리자겸의 총부장군인 탁준경을 피워서 리자겸을 치지 않았소이까. 입금을 허수아비로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거사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소이다.》

이 말을 들은 리성계는 눈을 꼭 감고 머리를 꺼먹거리었다.

이 날 급급히 모의한 것은 입금이 그 누구와도 접촉 못하게 연구상례에 두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고려왕족들도 그 누구와도 연계를 못하게 경

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몽주 측근 재상들을 빨리 제거하며 중간에서 통용하는 자들은 구슬리기도 하고 위협도 해서 우리 쪽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는 것이었다. 이때 정도전이 양호당을 없애버리고 하였다. 그러나 리성계가 반대하였다. 《그건 안돼. 우현보는 이전 송강이나 다름없어. 만일 그를 정몽주와 파로 몰아 심문한다면 송강은 준이나 도전이나 규탄을 받을걸세. 그렇다 그 정몽주처럼 암살해버렸다간 우리에게 대한 비난의 목소리만 더 높아지고 민심은 우리에게 저버릴수 있어. 그러니 우현보는 당분간 다치지 않게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되어 양호당의 생명이 얼마간 유지되었다. 이날 모임이 있던 후 리성계 입금은 전격적으로 정변준비를 다그쳤다. 이하에서 역달후인 7월에 공양왕은 원주로 추방되고 조선봉건왕조의 수립이 세상에 공포되었다.

새 왕조를 세운 리성계는 양호당에 사형을 내주었다. 개경장안의 골목마대에 의

해서 매일과 같이 의금부 호두각에서는 고려 충신들을 잡아다 신문, 고문, 처형하였다. 특히 고려 왕족계열의 왕씨들에 대한 박해와 탄압이 더욱 심했다. 누가 어떤 왕족을 기고 고려국을 재생양호도 시도할가봐 그 사소한 일도도 짓밟아버리기 위해서다. 왕씨가문에 대하여

금부, 사헌부, 형조, 포도청의 라줄, 군판, 라장들과 물관들이 짜다며 수색, 심문, 체포하고 나라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신음소리, 비명소리, 통곡소리가 골목마다에서 진동했다. 이 집자 집 대문이 부서지고 화본대의 꽃잎들이 박산났으며 깨어진 장독에서 흘러내린 절

복마전을 린상시켰다. 이통에 양호당의 만머느리번씨의 아버지인 오빠도 정몽주의 일파로 탄압되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친정아버지와 오빠의 비보를 들은 번씨부인은 통곡을 하다가 하늘을 부르며 《이 역적놈들아, 네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웨치고는 기절까지 하였다.

1393년 3월 보름날이다. 이날 양호당의 회갑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환갑상도 차려드리고 환갑연을 크게 베풀어 늘 울적하게 지내시는 아버지에게 이날 하루라도 기쁨을 드리라고 그 준비를 서둘렀다. 이것을 눈치챈 양호당은 자식들을 불러놓고 엄하게 말했다. 《보아하니 너희들이 내 환갑을 차려주고 서두르는 것 같은데 딱 걸여치려라. 내가 망하고는 장안이 초상남 집처럼 목숨이 높는데 무슨 놀의 환갑이냐? 환갑이고 뭐고 부산을 피우지 말아라.》

아들들은 찬했다. 만아들 홍수사 생각과 못해 아버지에게 간청하였다.